■ 민족문화연구 제92호(2021.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243-273.
http://doi.org/10.17948/kcs.2021..92.243

#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播遷논쟁

김경록(金暻綠)*

목 차

1. 머리말
2. 임진전쟁의 발발과 선조의 전쟁지휘
3. 선조의 전쟁인식 변화와 파천논의
4. 파천의 결정과 개성까지 파천과정
5. 맺음말

국문초록

임진전쟁은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질서 및 한중일의 역사전개를 변동시킨 역사적 사건이다.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임진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국왕 선조의 전쟁인식과 전쟁지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전대미문의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전쟁이 발발하자 선조는 전쟁에 대비했다고 인식하고, 초기에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지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국왕에게 신속한 전황보고가 없고, 왜곡된 보고내용으로 선조의 전쟁지도는 제한되었다. 선조는 신립의 패전으로 소극적으로 전쟁을 인식하고 전쟁지도에 혼선을 보였다. 일본군 병력, 전쟁지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선조는 도성사수론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정치·

*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군사적 위험이 많았던 파천을 결정했다.

파천은 조선이 개국이후 최대 국가위기였다. 선조와 신하들은 파천기록이 후대에 전해질 것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선조와 신하들은 파천논의에서 갈등했다. 반대에 직면한 선조는 신하들이 요구한 세자책봉을 수용했다. 세자책봉은 중요한 정치행위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전쟁이란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되어 향후 정치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선조는 한양에서 개성에 이르는 파천과정을 통해 국왕으로서 난처한 경험을 했다. 관원들은 도망하고, 백성들은 국왕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했다. 일본군의 추격은 급박하게 이루어졌다. 선조는 개성에 도착한 뒤 파천책임론에 직면했다. 파천의 최종책임자였던 선조는 책임론에 소극적이었다. 한강방어선, 임진강방어선이 무너지자 선조는 평양, 의주 등지로 파천하고 명군의 파병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 세자의 분조를 구성하도록 하여 조선군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 전쟁지도의 혼선을 초래했다.

주제어: 국왕 선조, 국제전쟁, 임진전쟁, 전쟁인식, 전쟁지도, 파천, 파천책임론, 세자책봉.

## 1. 머리말

임진전쟁은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질서 및 한중일의 역사전개를 변동시킨 역사적 사건이자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사상 등 제 분야에서 시대변화의 큰 획이 되는 전쟁이었다. 배경, 전개과정 및 영향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으로 현재까지 한·중·일 뿐만 아니라 세계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 그 관심의 무게만큼 논쟁점도 많아 한중일 간에 역사전쟁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역사논쟁이 전쟁관련 명칭이다. 임진전쟁의 역사성은 현재까지 전쟁 당사국이었던 한중일 학계의 학술명칭 차이에서 잘 보인다. 명칭은 임진전쟁에 대한 인식, 성격,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역사학의 임진전쟁 연구의 최종 단계라 할 것이다.[2]

---

1)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군사편찬연구소, 2016, 68-70면.

2) 한국학계의 경우만 살펴봐도 '조일 7년 전쟁'(손진태, 『國史大要』, 을유문화사, 1949), '조일전쟁'(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전편)』, 국방군사연구소, 1996), '壬辰戰亂'(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76), '임진전쟁'(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

이러한 임진전쟁의 중요성으로 현재까지 방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상당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3] 대표적으로 사료집의 성격을 가지며 전쟁배경에서 전쟁이후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서술한 연구[4]가 있으며, 방대한 연구성과는 적지 않은 연구사정리[5] 작업으로 이어져 임진전쟁의 개괄적인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 방대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역사사건 임진전쟁의 핵심인물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전쟁지도를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왕조국가에서 전쟁은 왕조의 명운을 좌우할 국가정책이다. 이런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많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지만, 이런 요소도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국왕의 전쟁인식 및 전쟁지도에 의해 고려될 수도, 무시될 수도 있다. 또한, 국제정세 및 군사동향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더라도 국왕의 취사선택에 의해 선별적으로 활용될 뿐이며, 국방력과 군사력 역시 그 규모와 정예함과 상관없이 국왕에 의해 그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임진전쟁 연구에 있어 국왕 선조에 대한 면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왕 선조에 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6] 비록 선조에 대한 연구는 아니더라도 조선 정부의 전쟁대응을 정리한 연구가 있기도 하다.[7]

---

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334-342면) 등 다양하며, 명칭문제를 접근한 연구로 한명기, 「'난동', '정벌', '원조'를 넘어 :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 83, 역사비평사, 2008, 503면; 김기봉, 「1592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성찰」, 『한국사학사학보』 26, 한국사학사학회, 2012, 80-81면 등이 있다.

3) 한국사에서 임진왜란을 집필한 성과는 최남선, 『임진록』, 동명사, 1931; 이상백, 『한국사』 4, 진단학회, 1965 이후 방대하게 축적되었다.

4)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1974, 1976.

5) 오종록, 「壬辰倭亂-丙子胡亂時期 軍事史 硏究의 現況과 課題」, 『군사』 38, 군사편찬연구소, 1999, 138-142면; 박제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25-36면;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7면;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군사편찬연구소, 2016, 68-70면.

6) 선조의 전쟁지도 및 파천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부수적으로 다음의 연구성과가 참조된다. 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군사』 81, 군사편찬연구소, 2011, 122-129면; 신병주, 「임진왜란 시기 광해군의 分朝 활동과 그 사회 통합적 영향」, 『문학치료연구』 5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234-238면; 조인희, 최윤오, 「임진왜란기(壬辰倭亂期) 분조(分朝) 구성원의 행적에 관한 고찰—공신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 73, 역사실학회, 2020, 52-55면.

그러나 임진전쟁의 배경, 경과과정, 영향에 이르기까지 밀접하게 연관된 국왕 선조의 전쟁인식 및 전쟁지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당시 조선 정부로 포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국왕 선조와 조정, 신하들 사이에 전쟁인식 및 대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최고 결정권자로서 국왕 선조의 전쟁인식과 전쟁지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쟁초기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의 전황 및 전쟁수행의 방향과 국왕 선조의 전쟁인식과 정치·군사적 전쟁인식은 상대한 괴리를 보인다. 전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는 부실했고, 신립의 조선군에 대한 높은 기대 및 좌절, 국왕으로써 한양도성 사수를 통한 전쟁의지 천명도 없이 파천이란 정치적, 군사적 부담을 감수하여 전쟁초기 전쟁지도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는 임진전쟁 전시기 국왕의 통치권위와 통치질서의 추락 내지 붕괴를 가져왔고, 명군에 대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으로 조선의 전쟁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귀결되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되, 임진전쟁 연구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국왕 선조의 전쟁인식 및 파천논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선조가 전쟁 1년전 비록 성곽을 수리하고, 추천받은 무관을 군사지휘관으로 임명하는 등 일정한 준비를 하였지만, 전쟁발발 1달만에 한양을 내어주고, 파천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비록 초기 여러 전투에서 패배했지만, 조선군의 전력이 어느 정도 존재했음에도 선조는 왜 왕도수호의 결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 또한, 정치·군사적 부담이 높았던 파천이란 정책결정으로 이후 국왕으로써 전쟁지도의 권위에 손상을 입었는가? 조선 건국이후 최초의 파천을 결정하는 과정은 어떠하였으며, 파천의 정치·군사적 배경은 무엇이었는가?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런 검토를 통해 전쟁의 최고 정책결정자 선조의 전쟁인식 및 전쟁지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임진전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 할 것이다.

이에 임진전쟁의 발발과 전황의 변화과정, 선조의 전쟁초기 전쟁인식과 전

7) 박희봉, 「조선 정부의 임진왜란 대응과 역할」, 『국가정책연구』 34-4, 국가정책연구소, 2020, 164-166면.

쟁지도, 파천논쟁의 전개과정, 파천의 결행과 역사적 의미 등을 정리한다. 이때 전쟁초기 선조가 인지한 전쟁보고와 전선의 전황이 가진 차이, 선조의 초기 전쟁인식의 변화과정과 이에 따른 전쟁지도의 실체,[8] 조선시대 전쟁이란 위기상황에서 파천이 가지는 정치, 군사, 예제적 의미와 영향을 정리한다.[9]

다만, 시론적인 연구임을 전제로 연구 대상시기를 전쟁발발에서 개성으로 파천하는 4월 13일부터 5월 1일까지의 18일로 한정한다. 본 연구를 통해 임진전쟁 초기 전황 및 보고체계, 일본군의 전쟁지도와 조선의 전쟁지도, 조선시대 전쟁에서 한양도성이 가지는 정치, 군사적 의미, 파천에 대한 국왕 선조와 신하들의 인식차이, 파천으로 인한 정치, 군사, 외교적 파장 등을 구체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임진전쟁의 발발과 초기 선조의 전쟁지휘

1592년 4월 17일(병오), 선조에게 긴급한 장계가 올라왔다. 이른 아침과 晡時(오후 3-5시)에 일본군의 침입을 알리는 경상좌수사 朴泓와 경상우병사 金誠一의 장계가 도착하자 조선 조정은 요동치기 시작했다.[10] 장계를 통해

---

8) 본 연구에서 국왕의 전쟁에 대한 지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군대수준에서 전투를 치룬다면 지휘라는 개념이 타당하지만, 국왕은 국가차원에서 전쟁 전반에 대한 정책과 시책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수준에서 전쟁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전쟁지도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9) 조선은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논의구조가 존재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보고, 이에 대한 정치, 사회, 군사, 경제, 예제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왕과 신하들의 치열한 논쟁이 존재하며, 국왕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논의구조가 존재했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임진전쟁 특히, 연전연패하여 국왕의 파천까지 논의되는 전쟁초기 논의구조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었다. 본 연구는 이런 일반적인 논의구조가 굴절 시행되어 국왕 선조의 주도적인 결정구조였다는 관점에서 논지를 전개한다. 전쟁발발에서 개성까지 파천하는 과정에서 논의구조의 굴절은 신하들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던 점에서 선조 주도의 논의구조가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선조실록』은 晡時에 박홍과 김성일의 장계가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은 경상좌수사 박홍의 장계가 이른 아침에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황상 제일 먼저 일본군의 침입사실을 직접 확인한 박홍이 도망하며 긴급하게 자신의 행적에 대한 변명으로 작성한 장계가 경상우병사 김성일이 경상좌병영의 연락을 통해 확인하고 작성한 장계의 보고시간은 반나절 이상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른 아침에 박홍의 장계가, 오후에 김성일의 장계가 도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임진전쟁 발발을 인지한 선조는 즉시 당시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무장 李鎰을 巡邊使로 삼아 중앙군을 이끌고 尙州로 내려가 일본군을 물리치도록 했다. 이때 조정에서 파견한 순변사 이일은 中路로, 左防禦使 成應一은 東路로, 右防禦使 趙儆은 西路로 내려가도록 하였다. 이는 선조가 장계를 통해 통상적인 단순 侵寇가 아님을 인지하고 戰線을 경상도로 한정하고자 삼면으로 대응하려 한 최초 전쟁지도였다.

선조가 중앙의 지휘관을 삼면으로 남하시킨 것은 첫째, 당시 중앙군이 부족하여 경과하는 지역에서 병력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일본군이 상륙하여 전선을 확대하던 경상도를 목표로 삼면으로 결집하고자 하였다. 첫 전쟁지도에 이어 선조는 순변사 이외에 助防將 劉克良으로 竹嶺을, 조방장 邊璣로 鳥嶺을 지키고, 강계부사 邊應星을 慶州府尹으로 삼아 경상도의 전장을 지휘하도록 했다.[11] 유력 무장을 경상도에 추가 파견하여 초기에 전쟁을 진압하려는 의도였다.

최초 전쟁지도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의 연패소식이 이어지자 선조는 2단계로 병력을 징집했다. 전국에서 군사를 징집하고, 사대부로 죄를 입어 파직되고 散職된 이들을 모두 대기하도록 하고, 무신으로 喪 중에 있는 자들을 모두 기복시켰다.[12] 뿐만 아니라 좌의정 유성룡으로 도체찰사를 삼아 전투와 군수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무능한 洪汝諄을 대신하여 병조판서에 제수된 金應南을 부체찰사로 삼고 전 의주목사 金汝物로 參謀官을 삼아 전선의 무장들을 통제하도록 했다.[13] 전통적으로 조선이 전쟁이란 국가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전선의 무장과 이를 총괄하는 유력 문관인 대신으로 하여금 체찰하도록 한 대응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국왕-체찰사(문관)-전선 지휘관(무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한 단계를 추가했다. 즉, 무장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국왕-체찰사(문관)-순변사(무관)-전선 지휘관(무관)으로 강화된 전쟁지도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유성

11)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12)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13) 『再造藩邦志』 1, 만력 20년 4월 16일.

룡의 건의에 따라 전선의 지휘관을 일원적으로 지원하고 지휘할 군사지휘관으로 북방에서 무공이 높았던 申砬을 三道巡邊使에 제수하였다. 선조는 신립에게 친히 寶劍을 하사하며, 전군에 "李鎰 이하 그 누구든지 명을 듣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처단하라. 中外의 정병을 모두 동원하고 紫門監의 軍器를 있는 대로 사용하라."[14]고 천명했다. 이는 당시 선조의 위기의식과 기대감을 함께 보여준다.

선조의 이러한 위기의식과 기대감은 전쟁이전 유성룡을 중심으로 신립, 이일 등의 무장과 함께 삼남지방에 일정한 전쟁대비를 하였던 조치 때문이었다. 선조는 임진전쟁 발발 전년에 대대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성읍을 수축했다. 지방관으로 이를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이는 경상감사 金睟였다. 김수는 영천·청도·삼가·대구·성주·부산·동래·진주·안동·상주·좌우병영의 성곽을 증축하고 참호를 설치했다.[15] 김수가 중점적으로 성곽을 증축한 경로는 부산에서 동래, 대구, 상주로 이어지는 한양길의 축선이었다. 일본군의 침입시 반드시 주요 전투가 벌어질 축선중심으로 대비한 것이다.

조선은 성곽의 수축뿐만 아니라 각종 군수, 통신체계도 점검했다. 임진전쟁에서 일본군의 상륙지이자 조선의 전선에 대한 배후기지였던 부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면, 조선이 대마도에 대한 방비책으로 중시한 곳은 경상우도의 熊川 등 各鎭과 경상좌도의 다대포 등이었다. 대마도에서 경상좌도에 들어오는 경로는 陶沙只島, 木島, 娚妹嶼를 경유하여 가덕도에 도착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가덕도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이미 중종대에 성을 쌓고 봉수와 연대를 설치하여 대마도를 측후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덕봉수, 응봉봉수에서 대마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연대를 설치하여 보고체계를 강화하였다. 선조는 성곽수축과 군사정보체계를 정비하여 전쟁대비를 하였다고 인식했다.[16]

---

14)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上親臨遣之, 賜寶劍一口, 曰李鎰以下, 不用命者, 卿皆斷之. 悉發中外精兵, 盡出紫門軍器. 都人皆罷市聚觀."

15)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7월 1일(갑자).

16)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군사편찬연구소, 2010, 123-125면.

그러나 선조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비록 조선의 이러한 대비가 있었지만, 전쟁에 임박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지다보니 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엄정한 전쟁대비 훈련이 미흡하였다. 조선의 전쟁대비는 기존 역사적 경험으로 왜구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즉, 국제전쟁으로서 대규모 정예군대의 침입을 예견하지 못하여 정작 전쟁이 발발하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전쟁초기 전투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진전쟁은 치밀하고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일본군과 전쟁 1년 전에 왜구수준의 대비하였던 조선군이 충돌한 전쟁이었다. 그 결과 개전초기 전투는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어졌다. 물론 조선군의 병력동원 및 대응책이 규정된 바대로 실시되어 부분적인 전투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군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선조는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전쟁대비를 완료했다고 전쟁인식을 가졌다.[17] 그러나 단적으로 군사정보체계는 선조의 전쟁인식과 달리 전쟁발발 초기 부실함을 노출했다. 선조의 임진전쟁 인식 및 전쟁지도를 분석할 때, 먼저 제한된 군사정보의 소통을 고려해야 한다. 당시 경상도의 전장과 한양 간에는 전황이 보고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4월 13일에 전쟁이 발발하였음에도 한양에 보고된 것은 4일 뒤 17일 오후였다. 물론 경상도의 지휘관이 침입을 인지하고 聞見한 바와 보고받은 내용을 장계로 작성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국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므로 그 장계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지연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 보고체계가 와해된 것은 부산진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 등 지휘관이 전사하고, 많은 지방관이 도망한 점, 소문과 전해진 내용으로 보고한 점, 의도적인 오보, 보고의 지연 등으로 선조와 조정이 정확하게 전황을 인지하고 전쟁지도를 펼치지 못했다.[18] 경상병마사, 경상좌수사 등은 도망하며

17) 이형석, 『임진전란사(상)』,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122-127면.

18) 최효식,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신라문화』 26, 신라문화연구소, 2005, 8면; 김경록,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군사편찬연구소, 2020, 165-166면. 동래성전투, 성주전투, 영천성수복전투 등에서 조선군은 나름 항전을 하였지만, 국왕 선조에게 명확한 전황보고 및 패전이후 정확한 보고는 없었다. 오히려 이들 전투에서 패

허위 내지 부실한 보고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상주까지 진출한 일본군이 通事 景應舜을 통해 화친을 제안하는 기만전술에 선조가 이덕형을 파견하여 침략사유를 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덕형이 용인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이 이미 조령을 넘어 되돌아왔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9]

신속하지 못한 군사정보의 소통과 함께 부실한 보고내용도 선조의 전쟁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4월 17일, 선조에게 보고된 침략한 일본군의 규모도 부정확했다.[20] 일본군은 병력 도합 158,700명으로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보고되는 침략군의 규모에 대해 많다는 수준의 보고였다. 물론 일본군이 일시에 부산지역에 상륙한 것은 아니지만 고니시가 지휘하는 1번대 18,000여 명만 하더라도 조선이 임진전쟁 이전에 대비하고자 했던 침략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였다. 부정확한 침략군 규모 및 전황보고는 선조의 전쟁인식을 왜곡시켰다.

일본군은 1번대(小西行長, 宗義智, 松浦鎭信, 有馬晴信, 大村喜前, 五島純玄) 18,700명, 2번대(加藤清正, 鍋島直茂, 相良頼房) 22,800명, 3번대(黒田長政, 大友吉統) 11,000명, 4번대(毛利吉成, 島津義弘, 高橋元種, 秋月種長, 伊東祐兵, 島津豊久) 14,000명, 5번대(福島正則, 戸田勝隆, 長曾我部元親, 蜂須賀家政, 生駒親正, 得居通幸, 来島通総) 25,000명, 6번대(小早川隆景, 毛利秀包, 立花宗茂, 立花直次, 筑紫広門, 安国寺恵瓊) 15,700명, 7번대(毛利輝元) 30,000명, 8번대(宇喜多秀家) 10,000명, 9번대(豊臣秀勝, 細川忠興) 11,500명, 수군(九鬼嘉隆, 堀内氏善, 杉若氏宗, 桑山重晴, 藤堂高虎, 脇坂安治, 加藤嘉明, 得居通幸, 来島通総) 9,000명 등이었다.[21]

일본군은 1번대에서 9번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한양도성을 향해 진격했다. 일본군은 부산에 상륙하여 한양으로 진격하는 부대 이외에 宮部長熙

---

전하였지만, 보고자의 변명으로 일관되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반면에 최근 연구에서 전쟁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연구성과도 있다.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 경상좌병사 朴晉과 權應銖의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 84, 군사편찬연구소, 2012, 9-14면.

19)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20)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21) 李炯錫, 앞의 책, 143-151면.

(2,000명), 木下重賢(850명), 垣屋恒總(400명), 龜井眞矩(1,000명), 南條元清(1,500명), 齋村廣英(800명), 明石則實(800명), 別所吉治(500명), 中川秀政(3,000명), 稻葉貞通(1,400명) 등 총 12,000여 명을 출병시켜 점령지역 후방 경비를 맡겼다.

小西行長이 지휘한 1번대는 4월 14일에 병선 700여척에 분승하고 오전 8시에 大浦項을 떠나 오후 5시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였으며 당일 부산포에 상륙하였다. 부산진전투, 동래성전투에 승리한 뒤 방어선이 붕괴된 조선군의 군사위협 없이 양산·밀양·대구·상주·조령방면으로 진격했다. 한편, 加藤清正이 지휘한 2번대는 대마도에서 부산에 상륙한 뒤 동쪽방면이었던 경주·영천·신령으로 진출하였다. 黑田長政의 3번대는 김해 죽도에 상륙하여 김해성을 공략하였으며, 毛利吉成과 島津義弘의 4번대는 김해에서 3번대와 합류하여 창녕·성주·개녕·추풍령으로 진출했다. 福島正則의 5번대는 4번대의 뒤를 따랐으며, 小早川隆景의 6번대와 毛利輝元의 7번대는 경상도 지역을 점령하며 후방지원을 담당했다. 宇喜多秀家의 8번대는 5월 초에 부산에 상륙하여 전군을 지휘하였다.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은 9번대는 4월 24일에 壹岐島에 留陣했다.[22]

한편, 임진전쟁 초기 동래부전투를 포함한 전황을 살펴봄에 일본군의 진출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일본군은 초기에 부산진, 다대진 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군 3번대의 함선 485척[23]은 4월 19일 별다른 해상저지 없이 김해의 죽도로 진입하여 조선군 척후부대를 제압했다. 일본군 2번대와 3번대는 4월 18일 아침에 부산포 앞바다에 도착했다.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2번대는 당일 곧바로 부산포에 상륙하여 육상으로 북상했으나 구로다 나가마사의 3번대는 부산포에서 다대포 인근을 경유하여 김해 죽도에 상륙했다. 김해부사 서예원가 죽도 앞바다에 척후선을 파견했지만, 일본수군이 제압하고 김해성을 포위했다. 이후 일본군 3번대의 교두보 확보에 이어 일본군 4번대가 후속하여 김해의 해안에 상륙했다.[24] 즉, 4월 18일에 일본군 제3, 4번대가 모두

22) 李炯錫, 앞의 책, 199-204면.
23) 『선조실록』 권29, 선조 25년 8월 7일(갑오).

김해에 상륙했다. 그러나 3번대의 선봉대만 보더라도 200여 척의 함대였으며 당시 일본의 상륙함대의 운용상 1개 번대의 함대를 단위로 기동했다. 일본군이 김해에 상륙하여 원활하게 경상우도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동래는 일본군이 병력을 전장으로 보내는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임진전쟁 초기 부산지역 전투경과표〉

| 일자 | 장소 | 비고 |
|---|---|---|
| 1952.4.13.16:00 | 가덕도 | 일본군 90여 척 배의 접근 보고(가덕도의 응봉 봉수·연대) |
| 1952.4.13. | 부산포 | 절영도에 있던 첨사 정발이 부산포로 이동 전투준비 |
| 1952.4.13.18:00 | 절영도 | 고니시 유키나가 1번대 절영도 도착 |
| 1952.4.14.아침 | 부산포 | 우암으로 상륙한 일본군의 부산포성 포위 공격 |
| 1952.4.14.오후 | 다대포 | 부산포를 점령한 일본군이 다대포진 공격, 실패 |
| 1952.4.15. | 다대포 | 일본군의 다대포진 공격, 점령 |
| 1952.4.15. | 동래 | 동래성전투 |
| 1952.4.15. | 진주 | 감사 김수가 경상도 上道·中道 分軍令 발령 |
| 1952.4.15.19-21:00 | 순천 |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일본군침입 공문 접수 |
| 1952.4.16. | 양산 | 양산전투에서 조선군 패배 |
| 1952.4.16. | 밀양 | 감사 김수가 경상도 전역 도내의 총동원 발령 |
| 1952.4.18.아침 | 부산포 | 가토 기요마사가 지휘하는 일본군 2번대 부산포 상륙 |
| 1952.4.19. | 김해 | 구로다 나가마사가 지휘하는 일본군 3번대 485척 김해 죽도 상륙 |

이상과 같이 4월 13일, 전쟁발발에서 선조에게 보고되는 4월 17일 시점까지 일본군은 1번대가 상륙 완료하고, 부산포, 동래부, 양산전투 등에서 승리하며 김해까지 진출하였으며, 4월 18일에 2번대가 부산포에 상륙하고, 4월 19일에 3번대가 김해에 상륙했다. 선조는 최초 보고를 받고 순변사 이일을 경상도에 차정하는 등 정책적 결정을 내렸다.

선조는 최초보고를 받은 이후 며칠 사이에 부산진, 동래부가 함락되고 경

24) 기타지마 만지 저, 김유성·이민웅 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경인문화사, 2008, 47면.

상좌도의 주요 군사거점이 점령된 상황을 보고받고 비로소 위협적이라 인식하고, 신립에게 군권과 각 군의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임진전쟁 이전까지 조선은 어떠한 전쟁에 직면해도 군사지휘관에게 모든 군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선조는 전쟁이전에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두고 경계하여 1년 전부터 각지의 군비를 강화했음에도 조선군이 처참하게 패전한 점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그럼에도 국왕 선조는 친림 및 보검 하사의 행사를 통해 조선군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비단 선조뿐만 아니라 당시 한양의 백성들은 평생 한번도 보지 못한 장수의 출전 및 그 의식을 염려스러움과 호기심으로 지켜봤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조와 조정은 신립과 이일의 조선군이 경상도에서 일본군을 섬멸할 것이라 기대했다.

비록 조선의 예상을 넘어선 일본군의 전면전으로 전쟁초기 전황이 전개되었지만, 선조는 감정적인 전쟁지도를 통해 잘못된 전쟁인식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 전선의 군사지휘관 임면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조는 연전연패의 전황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최고지휘관이었던 경상우병사 김성일을 징계하여 추포하고 한양으로 압송시켰다. 당시 김성일은 창원 마산포에 주둔하며 경상우도로 진출하려는 일본군에 대비하였다. 정작 일본군이 경상우도로 진출하려는 시점에 김성일의 추포령이 내려졌다. 지휘관이 추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자 경사우병영은 전투도 하지 못하고 흩어졌다.[25] 전쟁초기 부산진, 동래, 김해 등지에서 조선군이 연전연패 상황에서 정작 높은 전투의지로 군대를 지휘하던 장수를 추포하여 조선군의 지휘체계를 와해시킨 것이다. 이는 선조의 임진전쟁 인식이 초기에 매우 부족하고, 감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선조는 정작 경상도 남해안의 주요 방어선이 붕괴된 이후 모병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점에 김성일을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하였다. 선조는 김성일의 특별사면 및 임명뿐만 아니라 함안군수 柳崇仁을 좌병사로 특진시키고, 僉知 金玏을 경상좌도 安集使로 임명하여 부족한 병력을 징병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 일본군은 경주를 점령하고 경상좌병영을 와해시켰다.[26] 선조는 부정확

25)『龍蛇日記』.
26)『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전황보고 및 명확하지 못한 전쟁인식으로 전쟁발발 초기 조선의 경상우병영, 좌병영의 와해를 초래하는 전쟁지도를 펼친 것이다. 이후 와해된 조선군을 대신할 모병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모병관으로 김성일을 임명한 것이다.

한편, 선조는 신립의 출전에 이어 한양방어책을 논의했다. 한양방어는 선조와 조정의 전쟁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한양방어는 병조참의 沈忠謙이 도성방어를 위해 각도에서 군사징발을 건의하며 시작되었다. 軍務를 담당한 병조참의로써 심충겸은 전쟁이 일어나면 국왕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왕도에서 전선의 군대에게 군사위세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의지를 고취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제안하였다. 즉, 조선과 같은 왕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왕의 전쟁의지 및 전쟁지휘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한양사수 주장은 주목받지 못했다. 전황상 병력동원으로 지방 군현의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란 박충간의 반대로 심충겸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27]

선조의 이러한 전쟁지도는 4월 17일 시점까지 조선이 임진전쟁을 인식한 규모 및 성격을 보여준다. 선조는 대규모 병력과 진격방향을 고려하면 일본군의 전쟁목적이 한양점령을 통한 조선침략임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경상도에 한정된 전쟁수준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 부산에 침입한 뒤 전라도, 경상우도 등지로 추가로 상륙할 위험이 있어 삼남의 병력을 부산방면으로 집결시키지 못하더라도, 황해, 평안, 함경의 병력은 신속하게 한양으로 집결시켜 전쟁의지를 표방할 필요가 있었다. 일본군의 침입이 경상도에 한정되면 소집 병력은 한양에서 국왕의 전쟁의지를 보여주면 되었다. 그럼에도 신속한 병력 징발이 없었다.

그렇다고 선조가 전혀 군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조는 전통적인 전쟁대응 방식에 입각하여 대신들을 전쟁지휘관으로 제수함으로써 국왕과 전선의 지휘관 중간에서 전쟁을 총괄하도록 했다. 좌의정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한 것 이외에 우의정 李陽元을 京城都檢察使에, 박충간을 도성검찰사에, 李誠中을 守禦使에, 丁允福을 東西路號召使에

27)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商山君 朴忠侃은 조선의 군제에 있어 지방 군사력을 왕도 방위에 동원하면 지방 군현의 방비가 허술해져 지방을 방어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제수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조의 기대와 달리 경상도의 조선군이 패배하며 일본군은 신속하게 북진하였다. 상주로 내려간 이일은 일본군의 전술과 무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배했다. 조령의 지형을 이용한 방어시기를 놓친 申砬은 북방에서 기마전의 경험으로 4월 27일 犍川의 月灘가에서 패배했다.[28] 신립의 패전은 다음 날 28일에 선조에게 보고되었다. 신립의 승전보를 기대했던 선조는 당황하여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선조는 뜻밖의 의견을 제시했다. 즉, 播遷이었다.

왕조국가 조선이 건국이후 국왕이 파천한 사례는 없었다. 파천은 비록 위패를 옮겨가지만, 국가를 상징하는 종묘사직을 방기하고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가 붕괴됨을 의미한다. 민심이 이반됨과 함께 왕실을 호위하던 지배집단의 이탈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조선에 있어 지배층 사대부들이 왕조가 무너질 것이라 판단하고 이탈하면 외부의 침입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관료층이 왕실을 호위하지 않으면 국가의 통치질서는 붕괴된다.[29] 이를 방지하고자 전쟁이 발발하자 병조에서 국왕 선조에게 지방 병력으로 한양사수의 의지를 천명하자고 건의했다.

## 3. 선조의 전쟁인식 변화와 파천논의

임진전쟁 발발이전 전쟁대비를 하였다고 인식한 선조는 전쟁발발을 보고받자 조선군으로 경상도에서 격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고되는 군사정보의 지연과 부정확함으로 선조의 전쟁지도는 제한되었다. 선조는 순변사 이일의 파견 및 신립의 출전을 통해 조기에 전쟁을 종식시킬 것을 기대하였지만, 4월 28일, 신립의 패전소식을 접하고 전쟁인식의 혼란과 파천을 고려했다.

---

28)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 87, 군사편찬연구소, 2013, 295-299면.

29) 『선조실록』 권27, 선조 25년 6월 21일(기유). "初上之出京都也, 不但士庶皆言國勢必不復振, 有識縉紳輩, 亦以爲終必滅亡, 朝臣扈從者, 百無一二. 人心已去, 不可盡責."

신립의 패전은 선조에게 2가지 측면에서 충격적이었다. 첫째, 조선의 최고 무장이 최정예 부대로 패전하여 조선군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점이며, 둘째, 남한강의 상류였던 충주에서 한양으로 이어지는 길은 별다른 방어선이 없었다는 점이다. 국왕으로써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군대가 더 이상 없다는 점은 이후 선조로 하여금 소극적으로 전쟁을 지도하게 했다. 또한, 충주에서 남한강 길을 따라 한양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다는 점은 선조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선조는 이전까지 나름 고려했던 한양사수론을 폐기하고, 전대미문의 파천이란 정치·군사적 결정을 하였다. 선조가 파천을 주장하자 모든 대신과 대간이 반대했다. 이 반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선조실록』 해당 기사에 "부당함을 극언하였다"라는 서술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영중추부사 金貴榮은 종묘와 園陵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며 반발했으며, 왕명출납을 맡은 승정원의 우승지 申磔 마저 종묘의 대문에서 자결할지언정 파천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했다. 수찬 朴東賢은 국왕이 도성을 나가면 분노한 민심을 보장할 수 없어 국왕의 輦을 메는 인부도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이라 반발했다. 물론 이들의 반발은 국왕 앞에서 쏟아내었기 때문에 목놓아 통곡하는 모양새를 띄었다. 신하들의 반발을 예상하였겠지만, 그 정도에 선조는 당황하여 내전으로 들어가 버렸다.[30]

모든 신하들이 파천에 절대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외의 일이 발생했다. 영의정 李山海가 빈청에서 옛날에도 파천한 사례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모든 신하들이 파천에 찬성하는 것으로 이산해를 비판했다. 국왕의 파천 주장에 만조백관이 반대해야 함에도 백관을 주재하는 영의정의 이런 주장이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후 신하들은 국왕의 파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산해의 파면을 요청했다.

---

30)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28일(정사). "忠州敗報至, 上召大臣, 臺諫入對, 始發去邠之議. 大臣以下皆涕泣, 極言其不可. 領中樞府事金貴榮啓曰, 宗廟園陵, 皆在此, 去將何往. 當固守京城, 以竢外援. 右承旨申磔啓曰, 殿下若不聽臣, 終至播越, 則臣家有八十老母, 欲自刎於宗廟大門之外, 不敢從殿下去也. 修撰朴東賢啓曰, 殿下一出城, 則人心不可保. 荷輦之夫, 亦將委諸路隅而走矣. 仍失聲痛哭, 上色變, 遽還內."

즉, 13일 전쟁이 발발하고, 17일 이를 보고받은 선조와 조정은 28일 신립의 패전보고가 올라오기 전까지 조선군의 승리를 기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 및 전쟁에 대응했다. 반면, 28일 이후 국왕의 파천을 둘러싸고 선조와 신하들 사이에 충돌했다. 그 여파는 한양의 백성들에게 알려졌다. 국왕과 신하들이 갈등하는 동안 신립의 패전소식이 퍼지자 민심이 동요했다. 민심의 동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작 파천하고자 하였던 선조마저 민심안정을 위해 전교를 내릴 정도였다. 물론 선조의 자발적 전교 하달은 아니었다. 신하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였다.

한편, 28일 파천갈등이 한참일 때 선조는 宣政殿에서 徵兵體察使 李元翼, 崔興源, 우부승지 신잡 등을 인견하였다. 선조가 이원익과 최흥원을 별도로 인견한 이유는 명확했다. 이원익은 1587년(선조 20) 안주목사로 牧民하며,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기율을 엄히 하고, 사람들을 안집시켰던 인물이었다.[31] 최흥원은 개성유수, 평안감사를 역임하여 해서지방에 대한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었다. 선조는 이원익은 평안도에, 최흥원은 황해도에 파견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군사를 소집하여 거가를 영접하는 임무를 맡겼다.[32] 선조의 파천의지는 확고하였던 것이다.

한편, 선조와 신하들 사이의 갈등은 세자책봉이란 정치적 사건으로 일정한 타협을 이루었다. 전황이 불리하여 도성이 위협받자 신하들은 세자책봉을 건의했다. 평소 같으면 역모죄로 강력 처벌하였을 선조이지만, 세자책봉으로 민심을 진정시키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재위 25년을 경과함에도 세자책봉을 미루었던 선조의 성향과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다. 먼저 국왕의 최측근에서 종사하였던 注書와 史官들이 제안하고 승정원 승지들이 동의하는 등 선조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수순도 절묘했다. 선조로써 세자책봉은 동요하는 민심과 신하들의 이탈로 인한 통치질서를 다잡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세자책봉을 윤허 받았더라도 더 민감한 문제는 누구로 세자를 삼을 것인

31)『梧里續集』附錄 권1, 年譜. "移糶賑饑, 設禁捕盜, 流逋還集, 姦宄屛息."
32)『연려실기술』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가였다. 자칫 신하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건저를 세워 權臣化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국왕의 뜻과 다를 경우 엄청난 정치적 파동이 일어날 사안이었다. 이에 승지와 사관들을 이어서 영의정 이산해, 좌의정 유성룡 등 대신들이 선조로 하여금 세자 인선까지 마무리하도록 했다. 국왕 선조의 변심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다.[33] 드디어 4월 29일, 광해군을 세워 세자로 삼았다.[34] 광해군은 임진전쟁의 와중에 방계로 세자로 책봉됨으로서 어찌보면, 선조 스스로 그렇게 헤어나고자 하였던 방계출신 국왕이란 굴레를 이어가게 되었다. 즉, 국왕으로써 수월하지 않을 통치여정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建儲는 왕조국가 조선에 가장 중요하고 오랜 시일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특히 패전으로 파천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임진전쟁 초기 세자책봉은 선조의 전쟁인식과 대응이란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위기의식에 빠진 선조가 파천이란 정치적 주장을 하자 대신과 대간을 포함한 모든 관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신하들은 민심 동요와 이반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선조는 민심 위무 차원에서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허락했다. 어찌보면 국왕과 신하들이 일정하게 정치적 타협을 본 것이었다. 세자책봉을 허락한 선조는 파천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신하들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성, 평양, 의주까지 이어졌다. 또한 평양사수를 주장하는 신하들에 대해 세자의 분조라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었다. 어찌보면, 한양에서 파천을 정한 선조의 향후 전쟁대응 및 정치적 수순의 일환으로 결정한 사항이었을지 모른다.

선조는 세자책봉이후 파천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金命元을 도원수로, 申恪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을 방어하도록 하고, 邊彦琇를 留都大將으로 삼았다. 이런 선조의 전쟁대응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도 있었다. 종실 海豊君 李耆은 궁궐의 합문에서 통곡하며 반대했다. 이에 선조는 위선적이었지만, 한양을 사수하겠다고 전교하여 무마시키며 한편, 윤두수에게 호종인원을 구성

33)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28일(정사).
34)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29일(무오).

하도록 했다. 또한, 왕실의 행차를 분리시켜 臨海君과 順和君을 함경도로 출발시켰다.[35]

선조는 임진전쟁을 초기에 경상도에 한정된 전쟁으로 인식하였다가 신립의 패전이후 큰 위기상황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전쟁인식 변화는 가용한 전력을 집결시켜 전투의지를 높이기 보다 파천이란 정치적 결정으로 이어졌다. 선조의 이러한 전쟁인식의 변화는 전투의 패전이란 군사적 영향도 있었지만, 한양에서 발생하는 민심의 이반과 관원들의 이탈을 직접 경험한 점도 원인이 되었다. 즉, 선조와 신하들의 결정으로 파천이 결정되었지만, 민심은 안정되지 않고 군사들도 동요했다. 호위하는 군사들은 달아났으며, 궁문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았을 뿐더러 禁漏는 시간을 알리지 않을 정도로 이반되었다.

선조는 황망하게 파천하면서 반드시 챙겼던 것이 명으로부터 수령한 부험이었다. 부험은 조명관계에서 황제문서이자 대명사행에서 역전을 이용하는 증험문서로 명 중심 국제질서의 고명과 유사한 의미를 가졌다.[36] 선조대에 洪武연간에 수령한 2개, 만력연간에 수령한 4개 등 6개의 부험이 있었다.[37] 선조는 파천하는 날, 명에 內附할 생각을 하고 이를 챙겼다. 4월 30일, 선조는 파천하면서 祠官으로 하여금 종묘와 사직의 신주와 위판을 받들고 먼저 떠나도록 하였다.[38]

## 4. 파천의 결정과 개성까지 파천과정

임진전쟁 초기, 조선군이 연전연패하자 조정은 한양방비를 강화했다.[39]

---

35)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29일(무오); 30일(기미). 臨海君은 金貴榮과 尹卓然이, 順和君 李珏은 韓準과 李墅가 호종하였다. 왕자행렬의 출발 명분은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모집 능력과 의지도 없었다. 이는 순화군을 호종하고자 하였던 黃廷彧과 그의 아들 黃赫을 號召使로 삼고 한준은 국왕행렬로 소환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김경록, 「명대 역전제도와 한중관계에서 부험의 의미」, 『명청사연구』 49, 명청사학회, 2018, 32면.

37) 『임하필기』 권20, 文獻指掌編, 皇明符驗.

38) 『종묘의궤』 4책, 故事, 선조대왕 임진년 4월 기미(30일). 이후 한양을 점령한 일본군이 궁궐에 진주하였다가 밤마다 神兵이 나타나 공격하고 이에 南別宮으로 옮겨 주둔하였다는 야사를 조선은 『종묘의궤』에 수록함으로써 종묘와 사직의 신성함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는 선조의 파천에 대비한 것이었다. 선조는 4월 30일 丑時(새벽 1-3시)에 비 오는 날씨에 불구하고 仁政殿 뜰에서 백관과 인마와 함께 敦化門, 敦義門을 거쳐 碧蹄館에 잠시 머물렀다가, 야밤에 겨우 東坡館에서 하루를 묵었다.[40] 선조의 피난길은 전쟁상황을 반영하듯 비바람 부는 날씨였으며, 파천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모두 호종행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41] 이는 한양에서 파천하는 어가의 호종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의정부, 승정원, 이조, 병조를 제외하고 모든 아문의 관원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호종의 실무를 담당할 병력과 시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는 파천결정 과정에 관원의 반대와 도망이 많았으며, 일반 백성들의 혼란과 동요는 더 심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해 한양을 출발한 국왕행렬은 험난한 파천을 시작했다.

〈임진전쟁 초기 국왕행렬 파천 호종인원〉

| 아문 | 인원 |
|---|---|
| 의정부 | 영의정 李山海, 좌의정 柳成龍, 우의정 李陽元, 좌찬성 최황, 우찬성 鄭琢, 좌참찬 崔興源(황해감사), 사인 尹承勳 |
| 이조 | 판서 李元翼(평안감사), 참판 鄭昌衍, 참의 李廷馣, 정랑 趙挺·柳永慶(최흥원의 종사관)·鄭光績(강원도어사), 좌랑 李好閔(이원익의 종사관)·金時獻 |
| 호조 | 판서 韓準 |
| 예조 | 판서 權克智, 참판 朴應福, 좌랑 李慶流 |
| 병조 | 판서 金應南, 참판 沈忠謙, 참의 鄭士偉, 참지 黃暹, 정랑 李弘老·具宬·宋諄·柳熙緖(김명원의 종사관), 좌랑 徐渻·朴東亮·李覺(세자호종)·崔瓘 |
| 공조 | 참판 이덕형 |

39)『壬辰記錄』,「圃翁家譜略敍 草稿1」.“二十年壬辰夏 倭奴入寇 京師戒嚴.”

40)『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30일(기미). 신속한 이동을 위해 선조와 광해군은 말을 타고, 중전 등은 교자를 탔는데, 홍제원부터 비가 심해지자 淑儀 이하도 말을 탔다. 이때 호종인원은 궁인, 종친, 문무관을 합쳐 100명 미만이었다. 호종을 책임졌던 병조판서 金應南, 경기관찰사 權徵 등이 호종의 대열과 제반 식사 등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41)『壬辰記錄』,「圃翁家譜略敍 草稿1」;『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국왕행렬은 4월 30일 새벽에 한양을 출발하여 밤 늦게 동파관에 들어갔으며, 다음 날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점심도 먹지 못하였던 상태였다. 국왕행렬은 5월 1일 저녁에 개성에 도착했다.

| 한성부 | 판윤 洪汝諄, 우윤 朴崇元 |
|---|---|
| 사헌부 | 대사헌 李憲國, 집의 權悏, 장령 鄭姬藩·李有中, 지평 李慶禧·南瑾 |
| 사간원 | 대사간 金瓚, 사간 李礪, 헌납 李廷臣, 정언 鄭士信·黃鵬 |
| 홍문관 | 교리 李幼澄·沈岱, 수찬 朴東賢·任蒙正, 부수찬 尹暹·朴篪 |
| 승정원 | 도승지 이항복, 좌승지 이충원, 우승지 이정형, 좌부승지 盧稷, 우부승지 申磔, 동부승지 閔汝慶, 주서 朴鼎賢·任就正, 봉교 奇自獻, 대교 尹敬立·趙存世, 검열 金善餘·姜秀峻·金義元 |
| 기타 | 杞城君 兪泓, 해평군 윤근수, 해원군 윤두수<br>호군 李山甫·柳根·洪進·洪麟祥·閔濬·尹自新·黃廷式·黃廷立·李瓘·成壽益<br>대사성 任國老, 직강 沈友勝, 박사 李效元<br>사복첨정 朴應寅, 내승 朴東彦·安滉<br>첨지 柳希霖·鄭崑壽<br>宗簿僉正 閔善, 사섬봉사 李愼誠<br>장악직장 李慶全, 봉상봉사 洪鳳祥<br>선전관 崔賓, 武兼 韓淵 |
| 世子從官 | 보덕 沈岱, 필선 沈友正, 문학 李尙毅, 설서 李光庭, 부솔 姜絪 |

* 전거 :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선조는 파천 첫날을 東坡館에 머물렀는데, 밤에 임진나루에서 거센 바람과 물결로 도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 선조는 도강한 뒤 배를 침몰시키고 나루를 끊고 인근 인가를 철거시켜 일본군의 추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는 국왕행렬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뒤쳐진 호종인원의 발길을 지체시켰다. 이런 사례는 정탁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42]

파천 둘째 날(5월 1일) 동파역을 출발한 선조는 한양에서 개성에 도착하기까지 국왕으로써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고난을 경험했다. 일본군의 위협이란 군사상황뿐만 아니라 관원과 백성들의 이반, 행세마저 갖추지 못한 국왕행렬, 행렬을 따라오지 못하는 왕실 인원, 지방관원의 도망과 이반, 식사와 잠자리의 궁색함, 경복궁을 비롯한 왕궁에 침범한 난민의 횡패 등 총체적인 통치권위의 붕괴를 몸으로 경험한 것이다.[43] 비록 파천이었지만, 어가행차에

42) 『약포집』 권4, 雜著, 避難行錄上. 4월 30일(기미). 국왕의 건강을 점검하는 藥房 업무를 보던 67세의 정탁은 국왕행렬과 떨어져 늦게 한양을 출발했다. 파천 첫날 임진강을 건너지 못한 정탁은 다음 날, 겨우 임진강을 건너 동파관에서 국왕행렬에 합류하여 이후 영변까지 호종했다.

43)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기대했던 신립군이 패배하고 일본군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위와 안전이었다. 장엄한 권위는 처음부터 고려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안전은 확보되어야 했는데, 전시와 파천이란 위기상황에서 호위 군졸마저 도망하여 국왕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했다. 둘째 날 경기감영 소속 吏卒이 도망하자 경기감사 趙仁得이 수습하지 못했다. 瑞興府使 南嶷이 휘하 병력으로 겨우 국왕행렬을 호위할 정도였다.[44] 이에 선조는 윤두수를 어영대장으로 삼아 호위를 지휘하도록 했다. 결국 개성에 도착한 국왕행렬을 향해 투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45] 국왕으로써 최악의 이런 경험은 개성에서 선조의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성에 도착한 선조는 한양에서 파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받았다. 주된 대상자는 영의정 李山海였다.[46] 司諫院이 파천책임자로 이산해를 논박한 것은 당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형식은 파천책임을 신하인 이산해에게 물었지만, 내용은 파천 자체가 잘못된 결정임을 국왕 스스로 자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한양을 지키지 못하고 파천한 책임소재를 국왕의 부덕에서 강요하면서 형식만 국정을 담당한 신하를 책임 추궁한 것이다. 한양을 사수하고 국왕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국왕 선조가 먼저 파천을 주장한 상황에서 국왕 선조를 대신하여 파천을 언급하였던 영의정 이산해를 원흉으로 지목했다. 책임론의 강도는 냉혹했다. 우부승지 신잡과 병조정랑 具宬은 이산해의 목을 베도록 청할 정도였다.[47] 물론 국왕 선조의 파천의사를 이산해가 대변한 측면도 없잖아 있었기에 선조는 이산해의 파직을 반대하고, 오히려

---

남한강을 따라 진격하는 상황에서 왕명의 하달과 실행이 차단될 정도로 관원들의 離散이 심했다. 백성들은 모병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조정에 적대적이었다. 결국 시종과 군사들의 도망으로 인해 국왕행렬이 최소한의 행세도 갖추지 못하고 야밤에 출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비를 제외한 모든 비빈이 말을 타고 행렬에 참여하다보디 멀미로 뒤쳐지는 후궁이 속출했다. 개성에 접어들기 전까지 지방관이었던 장단부사 具孝淵은 국왕행렬을 영접하지 않고 도망할 정도로 파천은 그 시작부터 혼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44)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45)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46) 『약포집』 권4, 雜著, 避難行錄上. 5월 1일(경신).

47)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2일(신유). 이산해에 대한 파직여론은 대사헌 金瓚, 執義 權悏, 사간 李碩, 장령 鄭姬藩, 李有中, 지평 李慶禥, 헌납 李廷臣 등 사헌부와 사간원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주도했다.

파천을 반대하였던 유성룡을 함께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파천책임론은 시간과 공간의 측면에서 큰 정치적 함의가 있다. 한양을 떠나 파천한 다음 날 바로 정치적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국왕으로써 선조의 권위가 하락되고, 국왕의 결정에 대해 바로 다음 날 문제제기한 것으로 한양에서 파천한다는 정치, 군사적 정책결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고려왕조의 수도이자 건국초기 수도였던 개성에서 제기된 점도 중요하다. 종묘사직이 위치한 한양을 떠나더라도 留守府로 왕도 역할을 하던 개성에서 또 다른 파천은 불가하다는 정치적 압박이었다. 선조는 거듭 반대 입장을 표방하자 호위인원 이외에 강화의 黃愼 등 사대부들이 파천을 언급한 이산해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48] 황신뿐만 아니라 생원 具容, 權韠 등도 이산해를 탄핵하는 상소를 제출하였다.[49]

결국 선조는 파천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영의정 이산해를 삭탈관직시키고, 뒤이어 좌의정 유성룡을 파직시켰다.[50] 이산해 처벌은 선조의 입장에서 자신의 파천에 대한 책임추궁이었기 때문에 파천을 반대하였던 유성룡까지 함께 파직시킴으로써 파천의 책임을 무마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파천책임론은 국왕 선조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에 선조는 삼정승을 모두 파직시키고 새로 삼정승을 임명했다. 즉, 의정부를 개편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국왕의 모습보다 신하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영의정 이산해를 대신하여 유성룡을 임명하고, 해서지방 徵兵體察使로 파견하여 황해도에 있던 崔興源을 우의정으로, 윤두수를 좌의정으로 임명했다.[51] 그러나 개성부 父老들을 위유하는 과정에서 정철 서용의 건의를 받아들여 당일 다시 최흥원을 영의정으로, 윤두수를 좌의정으로, 兪泓을 우의정으로 임명했다.[52] 선조는 윤두수를 인견하며, 국가위기에 특명으로 석

48)『月沙集』권51, 行狀, 秋浦黃公行狀. 전쟁 발발이전 황신은 강화도에 퇴거해 있다가 선조가 파천하자 호종하고자 옮겨갔다가 伊川에서 광해군의 분조에 司書, 정언에 제수되어 종사했다.
49)『연려실기술』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50)『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3일(임술).
51)『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28일(정사).
52)『선조수정실록』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방하여 소환한 것이니 자신의 뜻을 저버리지 말 것을 주문했다.[53] 즉, 국왕으로써 치명적이었던 파천결정에 만조백관의 반대에도 지지해준 이산해와 같은 역할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러나 윤두수는 선조의 의도와 다른 입장을 취했다. 하루에 백관의 수장인 정승을 거듭 교체하는 인사조치가 이루어 진 것으로 국왕의 인사권이 가지는 권위마저 상실된 것이다.

선조의 鄭澈을 비롯한 서인세력 발탁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54] 이는 기존의 동인 이산해를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을 시도한 것이다. 비록 임진전쟁 발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에게 있더라도 전쟁대비의 부실함을 정치적으로 책임지워 향후 전쟁을 지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당시 정철은 建儲問題로 광해군의 책봉을 건의함으로써 信城君을 책봉하려던 선조에게 질책을 받고 파직되어 있었다. 당시 건저문제에 대한 선조의 반감은 明川, 晋州, 江界로 이어진 정철의 유배지와 의주목사 金汝岉, 金山郡守 任禮臣, 尼山縣監 金公輝 등도 동시에 파직된 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55] 선조는 이런 정철을 다시 정계에 복귀시켜 파천책임론에 대응하고자했다. 선조는 정철로 하여금 평양에서 어가를 호위하도록 했다.

선조가 개성에 머무는 동안 민심의 이반뿐만 아니라 군사와 이속의 기율도 문란하였다. 민심이 동요한 점은 이미 한양을 출발하였을 때, 한양에는 국초 승려 무학의 도참기 이야기와 세태를 풍자한 동요가 널리 퍼질 정도로 국왕과 조정을 향한 민심은 악화되었다.[56] 또한 호종하는 군사들의 기율도 문란하였는데, 단적인 사례로 군사들과 宗廟의 守僕들이 상호간에 분쟁하여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다. 선조는 개성으로 오면서 황해도에서 긴급하게 6천여 명을 徵兵하였는데 밥 짓는 일로 종묘의 수복들과 칼을 들고 서로 싸운 것이다.[57] 또한, 호종군사들이 황해도 토병들의 말을 함부로 빼앗는 사건이 발생하자 군율을 적용하여 참수한 일도 있었다.[58]

---

53)『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54)『약포집』 권4, 雜著, 避難行錄上. 5월 2일(신유).
55)『선조실록』 권25, 선조 24년 9월 16일(무인).
56)『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30일(기미).
57)『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3일(임술).

이런 정치, 군사적 위기의식에서 선조는 몇 가지 정치, 군사적으로 주목되는 주장을 했다. 군사적으로 선조는 일본군의 추격과 함께 당장 이반된 민심에서 느끼는 위협이 심했다. 이에 선조는 함경남도 兵使 申硈의 親兵을 개성에서 어가를 호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로 한양방어에 투입되고, 개성유수 洪仁恕의 930명이 호위하도록 했다.[59] 신할의 병력을 두고 벌어진 선조와 신하들의 의견차이는 선조의 개성에서 전쟁인식 및 위기감을 잘 보여준다. 선조가 어가호위를 주장하자 윤두수는 신할과 같은 장수를 일없는 곳에 두기보다 전선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쟁지도의 측면에서 논리가 부족하였던 선조는 엉뚱하게 신할에게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헤프닝을 벌였다. 신할은 호종군사가 허술하지만, 전선으로 가야한다고 답변하여 논쟁은 종결되었다.

처음 전라도관찰사 李洸이 휘하 병력을 이끌고 한양으로 향했다가 공주에 이르렀을 때, 선조가 파천하고 한양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력을 돌렸다. 선조는 이에 영남과 호남의 근왕병을 징발하고자 輔德 沈岱를 파견했다. 근왕병마저 파천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에 직면하여 다시 근왕병을 징발하는 관원을 파견한 것이다. 또한, 한양의 士民들을 효유하는 敎書를 우승지 申磌으로 하여금 留都大臣 李陽元과 도원수 金命元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잡이 파주에 이르렀을 때, 한양이 함락되자 전달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60] 이러한 군사적 정황이 선조의 정치적 입장을 더욱 난처하게 했다.

선조는 최흥원, 윤두수와의 인견자리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을 거론했다. 선조는 두려운 마음으로 민심의 이반을 넘어 일본군에 부역한다는 보고의 진위여부를 물었다. 이에 윤두수는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군과 상종할 리 없다

58)『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59)『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2일(신유). "左副承旨閔潛曰, 京城重地, 不可棄之. 宜令申硈率兵守禦. 上曰, 都元帥金命元, 方守漢江矣. 潛曰, 雖有元帥, 軍兵孤弱. 賊若一渡, 長驅何難. 上曰, 然則當守漢江乎, 守京城乎. 潛曰, 宜守漢江. 兵曹判書金應南曰, 本府亦城池龘龖, 守衛孤虛. 尹斗壽曰, 申硈不可不送. 如此驍將, 置之無事之地, 非計也. 上顧硈曰, 卿意欲行乎. 對曰, 臣觀行在, 亦極虛疎. 然臣當往也. 上問, 守漢江乎. 對曰, 然. 我國不謹瞭望. 若依山谷, 設疑埋伏, 賊不知虛實, 豈能邊逼哉. 仍命領精兵及新及第五十餘人, 赴之."

60)『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3일(임술).

고 단언하고, 국왕이 파천하더라도 일본군은 반드시 따라올 것이니 개성에 머물러 방비하도록 건의했다. 노련한 윤두수는 민심이 이반을 넘어 일본군에 부역할 수 있다는 선조의 두려움을 간파하고, 더 이상 파천의 불가함을 주장한 것이다. 선조는 확답을 하지 않고 편의대로 從事하게 하였다. 한편, 선조는 윤두수 인견 뒤 도승지 이충원과 청대하며 왕자를 평양으로 보냈으니 일본군이 접근하면 개성에 남을 수 없다며 여전히 파천의지를 내보였다.

이와 함께 신하들의 주장에 따라 선조는 백성들을 위무하고 전쟁의지를 고취하고자 曉諭했다. 직접 남대문에 나가 父老와 郡民들을 불러서 국왕으로 전황의 절박함으로 도성에서 개성으로 파천했지만, 개성은 死守한다는 뜻으로 효유했다. 선조는 직접 백성을 효유하고, 감읍한 백성들의 건의를 들어줌으로써 민심을 쓰다듬는 군주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백성들은 국왕이 개성에 머물며 진압하기를 건의하자 선조는 그러겠다고 하였다. 또한, 국왕이 직접 민원을 듣고 田租의 절반을 견감하는 정치행위를 보였다. 즉, 국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개성사수를 약속한 것이었다. 이는 바로 다음 날 평양으로 파천하려는 선조의 발목을 잡았다.[61]

한편, 선조는 이탈하는 호종관원을 위무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에 호종신하들을 加資했다. 첫 가자 대상은 도승지 李忠元, 좌승지 盧稷, 우승지 申磔, 좌부승지 閔濬, 우부승지 閔汝慶과 兩司의 장관 등 왕명출납 및 측근이었다. 이들은 선조가 당시 믿고 의지할 대상이었던 것이다.[62]

당시 전황은 파천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한양에 선조의 교서를 전달하려다가 惠音嶺에서 되돌아 온 申磔의 정세보고는 선조의 위기의식을 더 높였다. 李珏·成應吉 등이 후퇴하고, 일본군이 이미 강을 건넜다는 보고를 접한 선조는 바로 평양으로 파천하고자 했다. 이에 윤두수는 민심 동요를 이유로 다음 날 안정적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 파천을 두고 선조와 윤두수의 대립은 첨예하였다. 윤두수는 먼저 황해감사로 하여금 민심을 안정시키도록 開諭하

61)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2일(신유). "弘文校理李尙弘, 將讀諭書, 上曰, 百姓不解文字, 仍令留守曉諭. 仁恕承命諭訖, 士民皆感泣曰, 上旣離京城, 京城已潰矣. 若復離此, 尤難收拾, 願留鎭之. 上曰, 當從爾意."

62)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3일(임술).

고, 이후 점진적으로 이동할 것을 주장했다. 왕명에 반대한 윤두수의 입장은 국왕의 급한 행차로 개성주민과 인근 백성들이 혼란스러워 하면, 북진하는 일본군을 방어할 병력조달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에 선조는 우의정 兪泓과 이조참판 李恒福, 信成君 李珝, 定遠君 李琄를 평양에 먼저 보내어 城池를 수리하고, 방어계획을 세우고, 병력을 모으도록 했다.[63] 이항복 등은 실제 평양에 미리 가서 사수계획 및 업무를 준비하는 것이었지만, 왕자를 모시고 평안도로 간다는 명분으로 출발하였다.

개성에서 머문 2박 3일간 선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심의 이반, 관원의 이탈, 한양점령, 파천책임론 등 처참한 파천경험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왕으로써 통치권위는 많이 손상되었다. 부족한 전쟁인식 및 전쟁지도를 펼쳐 한양사수에 실패하고, 파천으로 근왕병의 회군을 초래하였다. 개성사수를 주장하는 신하들과 갈등하기도 했다. 국왕행렬의 호위마저 부실하여 안전의 문제를 초래할 정도로 통치질서가 마비되었다. 선조는 한양에서 파천이후 개성에서 최고 전쟁지도의 책임자로써 임진강방어를 중심으로 개성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천명하는 역할이 있었음에도 또 다른 파천을 지향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최고 통치권자로써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5. 맺음말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변동시킨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전쟁에 당면한 국왕 선조는 나름 전쟁대비를 수행하였다고 인식하고 전쟁발발 초기 전쟁지도를 펼쳤다. 그러나 전황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립의 조선군이 패전하자 선조는 전쟁의지가 없이 전쟁지도를 하였다.

---

63)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3일(임술);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개성에서 선조가 평양에 미리 파견한 유홍, 이항복은 선조의 파천의도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었으며, 병약하고 15세의 신성군, 13세의 정원군은 왕자들을 미리 안전하게 평양에 보내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당시 김공량과 함께 인빈 김씨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인빈 김씨소생의 신성군, 정원군을 미리 평양으로 보낸 것이다.

침략군의 병력, 전쟁지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선조는 한양사수론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정치·군사적 위험이 많았던 파천을 결정했다.

전쟁발발 보고를 접수한 선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군사지휘관을 전선에 파견하고, 조정 대신을 체찰사로 삼아 전쟁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러나 허실화된 동원체계와 훈련부족으로 전선의 군사지휘관은 지휘할 병력이 부족했으며, 그나마 존재하였던 병력마저 오합지졸이었다. 이에 선조는 신립을 삼도순변사로 삼아 일본군을 저지하도록 했지만, 일본군에 대한 정보부족과 기마전술에 대한 과신으로 신립이 패배하자 급속히 소극적으로 전쟁을 인식했다. 그 결과는 전국의 근왕병을 배경으로 한양사수의 결의를 보여 적극적인 전쟁지도의 기회를 상실하고 정치적 부담이 많았던 파천을 결정했다. 파천논쟁은 왕조국가 조선에서 개국이래 첫 파천을 경험하고 그 기록이 후대에 전해질 것을 우려한 국왕과 신하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논쟁이었다.

이 과정에 파천논쟁이 발생하자 정치적으로 세자책봉을 실행하여 군신간에 일정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졌다. 세자책봉 즉, 建儲는 왕조국가 조선에 가장 중요하고 신중한 정치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파천논쟁의 돌파구로 세자책봉이란 정치적 선택을 함과 동시에 이후 정치적 파장을 초래했다. 한양에서 파천을 출발하며 개성에서 다시 파천을 결정하여 출발하기까지 경험한 전쟁기억은 이후 선조의 임진전쟁 인식 및 전쟁지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강방어선을 통한 한양사수, 임진강방어선을 통한 개성사수 등이 연이어 패배하자 선조는 더욱 소극적으로 전쟁을 인식하고, 평양파천이 아니라 의주파천과 入遼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영변에서 세자 광해군의 분조를 구성하도록 하여 조선군에 대한 지휘를 포함한 전쟁지도의 혼선을 초래했다.

선조의 입장에서 국왕으로 종묘사직이 존재하는 한양도성을 버리고 파천한다는 것은 자신의 통치권위가 붕괴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충분히 인식했다. 그럼에도 충주를 돌파한 일본군의 접근이 초래한 위기의식과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천을 결정했다. 파천논쟁은 관원의 도망, 민심의 이반을 초래하여 국왕 선조에게 일본군이 가져오는 위기

감보다 더 한 내부적인 위기감을 가져왔다. 선조는 파천논쟁에서 파천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종묘사직의 신주를 사전에 옮기도록 하고, 주요 인물을 개성과 평양에 파견하여 파천시 행재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양에서 개성까지 파천하는 과정에서 국왕호위의 부실함과 호종관원의 빈곤함은 이후 정치적으로 호종관원을 절대적으로 우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정치적으로 파천한 다음 날부터 제기된 파천책임론은 비록 이산해에게 집중되는 모양새였지만, 궁극적으로 최종 파천결정권자였던 국왕 선조에게 향하는 정치적 공세였다. 이에 선조는 파천책임론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전쟁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유성룡과 함께 징계하고자 했다. 그러나 명군의 파병을 요청하며 유성룡을 재등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선조는 파천결정으로 인한 통치권위의 하락과 일본군의 추격에 대한 공포감으로 임진전쟁을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결국 분조를 통해 전쟁지도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와같이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전쟁지도는 파천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계에서 국왕 선조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했다. 향후 국왕 선조의 전쟁인식과 전쟁지도를 한양, 개성, 평양, 영변, 의주로 이어지는 파천과 연관하여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선조의 명군 파병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군을 포함한 조선군에 대한 인식, 일본군의 전쟁수행 차질에 큰 역할을 하였던 의병에 대한 인식, 파병된 명군과 조선군의 작전권에 대한 선조의 입장, 휴전협상에 대한 선조의 인식과 정책 등 국왕 선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제전쟁 임진전쟁에 대한 역사상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임진전쟁 연구의 시론적인 연구로 의미를 가진다.

## ▮ 참고문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燃藜室記述』, 『再造藩邦志』, 『龍蛇日記』, 『梧里續集』, 『林下筆記』, 『宗廟儀軌』, 『壬辰記錄』, 『藥圃集』, 『月沙集』.

국방군사연구소, 『한민족전쟁통사Ⅲ(조선시대 전편)』, 국방군사연구소, 1996.
기타지마 만지 저, 김유성·이민웅 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 경인문화사, 2008.
손진태, 『國史大要』, 을유문화사, 1949.
이상백, 『한국사』 4, 진단학회, 1965.
이형석, 『임진전란사』(상·중·하),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1974, 1976.
최남선, 『임진록』, 동명사, 1931.

김강식, 「壬辰倭亂을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지역과 역사』 38, 부경역사연구소, 2016, 7면.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군사』 100, 군사편찬연구소, 2016, 68-70면.
_____, 「명대 역전제도와 한중관계에서 부험의 의미」, 『명청사연구』 49, 명청사학회, 2018, 32면.
_____,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군사편찬연구소, 2020, 165-166면.
김기봉, 「1592년 전쟁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문명사적 관점에서의 성찰」, 『한국사학사학보』 26, 한국사학사학회, 2012, 80-81면.
김진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조선군의 대응양상에 대한 검토 : 경상좌병사 朴晉과 權應銖의 활동을 중심으로」, 『군사』 84, 군사편찬연구소, 2012, 9-14면.
박제광, 「임진왜란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5, 25-36면.
박희봉, 「조선 정부의 임진왜란 대응과 역할」, 『국가정책연구』 34-4, 국가정책연구소, 2020, 164-166면.
신명호, 「임진왜란 중 선조 직계가족의 피난과 항전」, 『군사』 81, 군사편찬연구소, 2011, 122-129면.
신병주, 「임진왜란 시기 광해군의 分朝 활동과 그 사회 통합적 영향」, 『문학치료연구』 51, 한국문학치료학회, 2019, 234-238면.
오종록, 「壬辰倭亂-丙子胡亂時期 軍事史 硏究의 現況과 課題」, 『군사』 38, 군사편찬연구소, 1999, 138-142면.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 87, 군사편찬연구소, 2013, 295-299면.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군사편찬연구소, 2010, 123-125면.
조인희・최윤오, 「임진왜란기(壬辰倭亂期) 분조(分朝) 구성원의 행적에 관한 고찰—공신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73, 역사실학회, 2020, 52-55면.
최효식,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신라문화』 26, 신라문화연구소, 2005, 8면.
하우봉,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의 임진전쟁」, 『한일관계사연구』 39, 2011, 334-342면.
한명기, 「'난동', '정벌', '원조'를 넘어 : '임진왜란'을 부르는 동아시아 공통의 용어를 위하여」, 『역사비평』 83, 역사비평사, 2008, 503면.

【Abstract】

## King Seonjo' the Understanding of War and Debate on wandering in a distant land in the Early Imjin War

Kim, Kyeong-Lok*

The Imjin War was a historical event that changed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and the development of history i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ate 16th century. In order to analyze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Imjin War,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understanding of War and War command of the King Seonjo of the Joseon.

When the Imjin War, which was an unprecedented international war, broke out, the King Seonjo recognized that they had prepared for war in advance, and in the early days implemented the traditional method of war command. However, the war situation was not quickly reported to the king, and the report was poor, so it was not possible to effectively command the war. In the absence of accurate information on the invading force's troops and war command, the King Seonjo unilaterally abolished a capital city saber theory and decided to wandering in a distant land, which had many political and military risks.

Faced with opposition from his officials, King Seonjo accepted the crowning of the prince demanded by his officials. In the Joseon Dynasty, which was then a dynastic state, crowning of the prince had to be carefully carried out as a very important political act. Nevertheless, war was decided very quickly in a crisis situation and became the cause of future political conflict.

King Seonjo had a very embarrassing experience as a king through the wandering in a distant land process from Hanyang to Kaesong. King Seonjo, who lost his authority as king, left Hanyang and arrived in Kaesong, and faced responsibility debate of wandering in a distant land. King Seonjo, who was well aware that wandering in a distant land's final responsibility lies with him, was passive in his responsibility debate

* Military History Institute, Senior Researcher.

of wandering in a distant land. When the Imjin River defense line collapsed, King Seonjo moved to Pyongyangand Uiju and strongly demanded the dispatch of Ming troops.

Keywords: King Seonjo, International War, Imjin War, the Understanding of War, War command, Wandering in a distant land, Responsibility Debate of wandering in a distant land, Crowning of the prince.

접수일: 2021.06.30. ‖ 심사일: 2021.07.08. ‖ 게재확정일: 2021.08.14.